



요양시설 노인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 인 숙¹⁾ · 김 미 숙²⁾ · 강 희 영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8년에 9.9%를 차지하여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향후 2018년에는 14.3%로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Statistics Korea, 2009) 노인 인구의 건강에 초점을 둔 보건 의료 환경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발효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시설이나 가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517만 6,242명으로 노인인구의 9.1%에 해당하며,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25만 9,456명으로서(Statistics Korea, 2009)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급진전하는 고령화 속도와 함께 노부모를 돌보는 효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전통적인 가족의 노인 부양능력이 약화되면서(Hong & Son, 2007)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족 간의 의사결정에 의해 요양시설의 입소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설입소는 노인들이 겪어야 하는 삶의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McAuley, Pecchioni, & Grant, 1999).

더욱이 노인들이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지금까지 익숙한 환경에서 시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으로의 이동, 일상적인

생활패턴과 사회적 지지망 뿐만 아니라, 입소 직후 상실감, 무력감과 더불어 버려졌다는 느낌, 그리고 시설의 규칙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들로 인해, 이미 입소한 노인들로부터 공격이나 비난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면 부당함과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Goh, Hwang, & Oh, 2009), 공동생활로 인한 갈등, 외로움, 불안, 우울, 스트레스 및 수면장애 등으로 심리적인 문제가 가중될 수 있다(Amer, 1996). 시설 입소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하여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Goh et al., 2009), 입소 노인들은 자율성과 개별성이 제한되고, 입소 전후 생활의 연계성이 단절되며 관계형성의 제한 등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관계형성의 어려움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신체적 기능의 약화와 입소자들 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가족, 친구관계의 감소가 외로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Bark, Chung, Anh, & Shin, 2004).

외로움이란 개인이 갖는 사회적 관계의 지지망이 양적, 질적 면에서 기대보다 결핍되었을 때 발생하는 불유쾌한 경험으로(Russell, Peplau, & Cutrona, 1980), 노년기의 전반적인 안녕감과 삶의 질 저하 및 우울, 무력감, 절망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하여 만성화될 경우, 자살 위험까지도 초래할 수 있어 노년기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Ekwall, Sivberg, & Hallberg, 2005).

지금까지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일반노인들의 외로움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Theeke (2009)는 노인의 외

주요어 : 노인, 요양시설, 외로움

1)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2) 일반 간호사
 3)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moohykang@naver.com)
 접수일: 2010년 7월 21일 차 수정일: 2010년 8월 15일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20일

로움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변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신체적인 변수는 고령(Savikko, Routasalo, Tilvis, Strandberg, & Pitkälä, 2005), 기능상태 저하(Cohen-Mansfield & Parpura-Gill, 2007), 만성 질병의 수 및 심한 운동장애(Theeke, 2009) 등과 관련이 있고, 심리적인 변수는 우울(Cohen-Mansfield & Parpura-Gill, 2007), 사회적인 변수는 배우자와의 사별(Savikko et al., 2005; Theeke, 2009), 친구(Eshbaugh, 2009), 혼자 사는 것(Cohen-Mansfield & Parpura-Gill, 2007; Theeke, 2009), 가족기능의 변화, 생활만족도 및 사회적 지지(Kim & Baik, 2003; Song et al., 2007) 등과 관련이 있다.

이처럼 위의 선행연구에서 일반노인들의 외로움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재가, 경로당, 노인정, 공원 등 지역사회 거주 또는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요양시설 노인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많고 요양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외로움에 관해 조사한 연구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요양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개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활동으로, 신체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면서 동시에 시설 이용의 결정요인인(Kim, 1998) 일상생활활동과 지역사회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노인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요인으로 확인된(Kim & Baik, 2003) 사회적 지지를 친구지지, 가족지지, 중요한 타인 지지로 구분하여 요양시설 노인들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노인들의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중재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요양시설 노인의 외로움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둘째, 대상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사회적 지지 및 외로움 정도를 파악한다.
-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로움 정도를 파악한다.
- 넷째, 대상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사회적 지지 및 외로움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다섯째, 대상자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시설노인의 외로움 정도를 파악하고,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 2곳에 거주하는 시설노인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첫째, 60세 이상의 노인
- 둘째,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고 참여를 승낙한 자
- 셋째, 인지기능의 장애가 없어 질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
- 넷째,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다섯째, 요양시설 입소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본 연구에서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선정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이상을 연소 노인(young old)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60세부터 노령연금 급여대상자가 되며 노인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응답과 측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고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주었으며, 연구대상인 노인들에게는 서면 동의를 구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G*Power 3.0.1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의 크기를 구한 결과, 유의수준(α) .05, 효과크기 0.10, 검정력은 0.80, 회귀분석에 이용한 독립변수 5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표집수가 134명 이상이 되면 예측 검정력을 유지할 수 있다. 탈락을 고려하여 최소 160명을 목표인원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160부가 배부되었고, 이중 156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50부(88.3 %)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도구

● 일상생활수행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은 Won, Rho, Sunwoo와 Lee (2002)가 개발한 Korean Version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K-ADL)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질문지는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Likert 3점 척도로 ‘완전 도움’ 1점에서 ‘완전 자립’ 3점까지 점수를 주었다. 점수범위는 최저 12점에서 최고 36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Won 등(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9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89이었다.

●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Zimet, Dahlem, Zimet와 Farley (1988)가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개발하고, Lee (2000)가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가족, 친구, 중요한 타인이라는 세 하위 영역에서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요한 타인은 가족과 친구이외의 내 주변에 있는 특별한 사람을 의미한다. 총 12문항의 5점 척도로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거의 그렇다' 5점까지 점수를 주었고 점수범위는 최저 12점에서 최고 6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Zimet 등(198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95이었다.

● 외로움

외로움은 Russell 등(1980)이 개발한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을 Kim (1997)이 변안한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질문지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자주 그렇다' 4점까지 점수를 주었으며, 부정적 문항은 점수를 역환산하였다. 점수범위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199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84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10월 10일부터 10월 23일까지 14일 동안 실시되었다.

자료수집방법은 G시에 소재한 노인시설 2곳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시설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에 대상노인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진행절차를 설명하고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또한 수집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였고 질문지 160부를 배부하였다. 일대일 면담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는 연구자가 읽어주고 응답을 기록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일상생활수행능력, 사회적 지지 및 외로움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외로움의 차이검증은 t-test, ANOVA,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사회적 지지, 외로움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외로움 영향요인 분석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64.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평균 연령은 71.5세로 나타났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36.7%로 가장 많았고, 결혼 상태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가 72.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결혼한 경우 자녀수는 3명이 41.7%로 가장 많았다. 요양시설생활기간은 1년 이상-5년 미만이 30.7%, 5-10년 26.4%, 11-14년 23.6%, 15년 이상이 19.3%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지각한 경제상태는 보통이 41.6%로 가장 많았고 본인들이 느끼는 건강상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56.7%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사회적 지지, 외로움 정도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사회적 지지, 외로움 정도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은 평균 31.79점, 외로움은 평균 43.69점, 사회적 지지는 평균 41.36점이며, 이를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친구지지 22.48점, 가족지지 11.49점, 중요한 타인지지 7.39점 순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외로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외로움의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3), 연령($F=8.49, p<.001$), 학력($F=12.77, p<.001$), 배우자 유무($t=2.85, p<.001$), 종교($t=6.57, p=.011$), 시설 입소기간 ($F=7.40, p<.001$), 주관적으로 지각한 경제상태($F=5.78, p=.004$), 건강상태($F=2.83, p=.027$)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결과, 연령에서는 81세 이상이 60-70세와 71-80세 보다 외로움을 더 경험하였고, 학력에서는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0)

Characteristics	Category	n	(%)	Mean±SD
Gender	Male	53	35.3	
	Female	97	64.7	
Age in years	60-70	80	53.3	
	71-80	43	28.7	71.5±6.65
	≥81	27	18.0	
Education	None	15	10.0	
	Elementary school	55	36.7	
	Middle school	43	28.7	
	High school or higher	37	24.7	
Marital status	Married	101	67.3	
	Unmarried	49	32.7	
Spouse	Yes	42	28.0	
	No	108	72.0	
Religion	Yes	34	22.7	
	No	116	77.3	
Period of living in institutional facilities (years)	1-<5	43	30.7	
	5-<10	37	26.4	
	10-<15	33	23.6	
	≥15	27	19.3	
Perceived current financial status	Poor	43	21.8	
	Moderate	71	41.6	
	Good	36	16.8	
Number of children	1-2	22	19.8	
	3	42	41.7	
	4	17	16.5	
	≥5	20	19.4	
Health status	Very poor	12	8.0	
	Poor	30	20.0	
	Average	85	56.7	
	Good	17	11.3	
	Very good	6	4.0	

Table 2. Level of Activity of Daily Living,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N=150)

Variables	Items	Mean	SD	Range	
				Real score	Possible score
Activity of daily living	12	31.79	4.83	18-36	12-36
Social support	12	41.36	10.69	12-60	12-60
Significant others' support	2	7.39	1.76	2-10	2-10
Family support	4	11.49	4.48	4-20	4-20
Friend support	6	22.48	5.75	6-30	6-30
Loneliness	20	43.69	8.47	24-63	20-80

업 군에서, 시설입소기간이 길수록 외로움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으로 지각한 경제 상태에서는 ‘좋다’고 한 군이 ‘보통이다’와 ‘나쁘다’고 한 군보다, 건강상태도 ‘매우 나쁘다’고 한 군이 ‘좋다’고 한 군보다 외로움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사회적 지지 및 외로움간의 상관관계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사회적 지지 및 외로움 간의 관계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수행능력 과 외로움($r=-0.379, p<.001$),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r=-0.371, p<.001$)간에는 유의한 역상관 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지지를 하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중요한 타인지지와 외로움($r=-0.449, p<.001$), 친구지지와 외로움($r=-0.472, p<.001$)간에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상자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3. Differences in Loneli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0)

Characteristics	Category	n	Mean±SD	t/F	p	Scheffe
Gender	M	53	2.22±0.40	0.29	.591	
	F	97	2.18±0.44			
Age in years	60-70 ^a	80	2.14±0.40	8.49	<.001	a<c
	71-80 ^b	43	2.12±0.44			b<c
	≥81 ^c	27	2.49±0.35			
Education	None ^a	15	2.40±0.38	12.77	<.001	a>c
	Elementary school ^b	55	2.40±0.26			a>d
	Middle school ^c	43	2.06±0.43			b>c
	High school or higher ^d	37	1.97±0.47			b>d
Marital status	Married	101	2.08±0.46	25.46	.094	
	Unmarried	49	2.43±0.21			
Spouse	Yes	42	2.10±0.52	2.85	<.001	
	No	108	2.23±0.38			
Religion	Yes	34	2.04±0.46	6.57	.011	
	No	116	2.24±0.41			
Period of living in institutional facilities (years)	>5 ^a	43	2.01±0.46	7.40	<.001	a<c
	5-10 ^b	37	2.19±0.42			a<d
	11-14 ^c	33	2.28±0.37			
	≥15 ^d	27	2.46±0.33			
Perceived current financial status	Poor ^a	43	2.28±0.44	5.78	.004	a>c
	Moderate ^b	71	2.25±0.33			b>c
	Good ^c	36	1.99±0.51			
Number of children	1-2	22	2.03±0.42	0.91	.438	
	3	42	2.07±0.46			
	4	17	2.01±0.49			
	≥5	20	2.23±0.48			
Health status	Very poor ^a	12	2.45±0.44	2.83	.027	a>d
	Poor ^b	30	2.18±0.37			
	Average ^c	85	2.22±0.39			
	Good ^d	17	1.95±0.56			
	Very good ^e	6	2.09±0.46			

Table 4. Correlations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N=150)

Variables	1	2	3	4	5	6
	r (p)	r (p)	r (p)	r (p)	r (p)	r (p)
1. Activities of daily living	1.0					
2. Social support	-0.371 (<.001)	1.0				
3. Social support (Significant others' support)	0.361 (<.001)	0.719 (<.001)	1.0			
4. Social support (Family support)	0.346 (<.001)	0.698 (<.001)	0.573 (<.001)	1.0		
5. Social support (Friend support)	0.419 (<.001)	0.731 (<.001)	0.779 (<.001)	0.651 (<.001)	1.0	
6. Loneliness	-0.379 (<.001)	-0.371 (<.001)	-0.449 (<.001)	-0.110 (.181)	-0.472 (<.001)	1.0

Table 5. Factors Influencing Loneliness (N=150)

Variables	B	β	t	p	R ²	F	p
Friend support	-0.20	-0.44	-3.71	<.001	0.29	0.56	<.001
Activities of daily living	-0.02	-0.25	-3.31	<.001			
Significant others' support	-0.12	-0.25	-2.36	0.021			

대상자들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본 연구 대상자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왔던 변수인 일상생활수행능력, 중요한 타인지지, 친구지지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로움과의 차이 검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인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종교, 시설 입소기간, 주관적으로 지각한 경제상태 및 건강상태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변수 간 상관성 분석을 한 결과, VIF값이 2.191-3.918을 나타내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없고, Dubin-Watson 상관관계는 1.564를 나타내 잔차의 상호독립성을 만족하고, 잔차의 정규분포성이나 등분산성은 표준화 예측값과 표준화 잔차의 산점도상에서 정규분포와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여 모든 변수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친구지지, 일상생활수행능력, 중요한 타인지지가 외로움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F=0.56$, $p<.001$), 이들 3개 변수가 요양시설 노인의 외로움을 총 2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반 의

본 연구는 일 지역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을 편의표집하여 실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지만,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요양시설 노인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수를 다양하게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외로움 정도는 평균 43.69점으로, 외로움 상, 중, 하의 3단계로 나눈 Perry (1990)의 분류에 의하면, 중등도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가정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Kim (2006)의 40.79점,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Song 등(2007)의 39.61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Song 등(2007)은 노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경제력 정도가 아주 좋은 경우, 가족 구성원 간 친밀도가 높은 경우, 운동 및 신체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외로움 정도가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과반수 이상이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살고 있고, 절반 정도가 무학이나 서당 및 초등학교 출신의 저소득층이며, 또한 과반수 이상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경제상태와 건강상태도 대부분이 좋지 않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조건들이 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의 외로움을 더 가중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 정도는 31.79점으로 재가노인(Kwon, Ha, & Ahn, 2007)과 양로원 노인(Byeon & Lee, 2002)의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은 기능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노인의 생활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Kim, 1998), 일상생활기능의 저

하는 독립적 생활의 어려움을 의미한다(Bae, 2009). 따라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사회적 지지정도는 41.36점이었으며, 이를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친구지지가 가족지지나 중요한 타인지지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분석은 어렵지만, 국외의 경우, 네팔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Chalise, Saito, Takahashi와 Kai (2007)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이 배우자, 자녀, 친구 순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재가 노인일 경우 가족지지를 높게 생각하지만, 본 연구의 요양시설 노인들은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곳이 요양시설이므로 대안적인 사회적 지지의 기능으로 친구지지를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외로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연령, 학력, 배우자, 종교, 시설 입소기간, 주관적으로 지각한 경제상태,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사후검증한 결과, 연령, 학력, 시설 입소기간, 주관적으로 지각한 경제상태,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서는 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외로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Theeke (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나 Kim과 Baik (2003)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결과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학력과 한달 용돈에서는 학력(Kim, 2006), 월수입(Savikko et al., 2005; Song et al., 2007)이 높을수록 외로움 정도가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노인들의 학력이 높고 한달 용돈이 많은 대상자가 보다 폭넓은 사회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Dykstra & De Jong Gierveld, 1999) 학력이 낮고 본인이 지각한 경제력이 낮은 노인에 비해 외로움이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상자들의 시설 입소기간이 길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시설에 오래 거주할수록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환자나 자신의 일상생활 활동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건강도 나빠질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두려움과 위협을 경험하며(Goh et al., 2009), 이로 인해 요양시설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들 노인들은 입소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령도 많아지면서 건강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어 이들 요인들이 동반되면 외로움은 더욱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관리자들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태도 및 돌봄을 통하여 대상자들의 환경은 바뀌었지만,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고 신체적 건강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건강상태에서는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한 군이 외로움 정도가 더 높았는데, 이는 Savikko 등(2005)의 결과와 일치하였고, 또한 Bark 등(2004)의 연구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노인일수록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건강행위에도 덜 참여하게 되어 외로움을 더 느낀다는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따라서 시설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여하도록 하면 외로움이 어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외로움은 일상생활수행 능력과 사회적 지지 중 친구지지 및 중요한 타인지지와 유의한 중정도의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지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분석은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요양시설 노인들은 가족 지지보다는 시설내의 친구나 중요한 타인이 외로움에 더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여기에서 중요한 타인은 가족과 친구 이외의 내 주변에 있는 특별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요양시설내에서의 직원들의 지지는 노인들에게 외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적 지지는 선행연구(Kim & Baik, 2003)에서도 의미 있는 외로움의 영향요인으로 보고되었으나 Kim과 Baik (200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를 보았고,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중요한 타인지지, 가족지지, 친구지지로 세분화하여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요양시설노인들의 외로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원 중 친구지지와 중요한 타인지지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혼자 사는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Eshbaugh (2009)의 연구에서도 친구가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Fees, Martin과 Poon (1999)도 노인을 방문하는 횟수보다는 친밀함이 노인의 외로움을 감소시키는데 보다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Chalise 등(2007)은 노인들은 자녀와 함께 살면서 자녀의 지지를 받고 배우자와 자녀들 및 친구나 이웃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주면 외로움이 감소된다고 보고하여 외로움은 서로 주고받는 사회적 지지의 상호관계 속에서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또한 Ha와 Hong (1999)에 의하면, 시설노인들에게는 대안적인 사회적 지지의 기능을 친구가 대신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친구가 생각하는 것이나 관심을 갖는 바가 서로 같고 서로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집단으로 노인들에게 친구지지는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외로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친구 사귀기 및 친구와의 친밀감 형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외로움에 영향을 미쳤으며, 대상자의 일상생활수행 능력과 외로움은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일상생활수행 능력 정도가 낮을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설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비교분석은 어렵지만, 시설노인을 대상으로 고독감을 조사한 Kang (2008)의 연구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을수록 고독감 정도가 낮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이란 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는 시설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므로 일상생활기능의 저하는 독립적 생활의 어려움을 의미한다(Bac, 2009). 그러므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감소된 노인들은 수행능력이 있는 대상자보다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허약하고, 사회적인 역할이 차단되므로 고독감이나 외로움을 보다 더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Victor, Scambler, Bowling와 Bond (2005)의 연구에서는 건강쇠약이 외로움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고, Cohen-Mansfield와 Papura-Gill (2007)과 Savikko 등(2005)의 연구에서도 신체기능상태 저하가 외로움의 영향요인이었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영위해 나가는 측면에서 신체기능 상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기능상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간호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상에서와 같이 사회적 지지 중 친구지지와 일상생활수행 능력이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로 확인되어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요양시설 노인을 위해 외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프로그램 개발 시 친구지지와 일상생활수행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일 도시에 소재한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외로움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요양시설 노인들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친구지지, 중요한 타인지지,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중요한 타인지지, 가족지지, 친구지지로 세분화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친구지지가 요양시설 노인들의 외로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로 나타나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요양시설 내에서 친구와의 친밀감 형성을 높이고 시설에서의 중요한 사람들의 지지와 일상생활수행능력을 강화

하기 위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추후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의 요양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고,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중 친구지지가 요양시설 노인의 외로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외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친구와의 관계형성 프로그램 개발 및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rmer, J. M. (1996). Elderly relocation to rural congregate setting: Personal meaning and perceptions related to decision to move and overall adjustment. *Journal of Nursing Science, 1*, 105-114.
- Bae, J. H. (2009). The effect of ADL and IADL on the depression of the older-elderly.-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and elder abuse-*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 353-368.
- Bark, Y. J., Chung, H. K., Anh, O. H., & Shin, H. W. (2004). The relationship of loneliness, health behavior and self-esteem in elderly people.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6*, 91-98.
- Byeon, Y. S., & Lee, J. I. (2002).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cility satisfaction, depression and ADL in the elderly people residing in nursing hom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9*, 45-55.
- Chalise, H. N., Saito, T., Takahashi, M., & Kai, I. (2007). Relationship specialization amongst sources and receivers of social support and its correlations with loneli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A cross sectional study of Nepalese older adults.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44*, 299-314.
- Cohen-Mansfield, J., & Parpura-Gill, A. (2007). Loneliness in older persons: A theoretical model and empirical findings.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19*, 279-294.
- Dykstra, P. A., & De Jong Gierveld, J. (1999). Differential indicators of loneliness among elderly. The importance of type of partner relationship, partner history, health, socio-economic status and social relations. *Tijdschrift voor Gerontologie en Geriatrie, 30*, 212-225.
- Ekwall, A. K., Sivberg, B., & Hallberg, I. R. (2005). Loneliness as a predictor of quality of life among older caregiver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9*, 23-32.
- Eshbaugh, E. M. (2009). The role of friends in predicting loneliness among older women living alone.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35*, 13-16.
- Fees, B. S., Martin, P., & Poon, L. W. (1999). A model of loneliness in older adult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4*, 231-239.
- Goh, J. K., Hwang, I. O., & Oh, H. Y. (2009). The experiences of the newly admitted elderly residents in nursing hom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 477-488.
- Ha, K. Y., & Hong, D. A. G. (1999). The relations between friendship network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or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8*, 75-90.
- Hong, S. W., & Son, H. M. (2007). Family caregivers' experiences utilizing a nursing home for their elderly family memb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 724-735.
- Kang, H. (2008).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oneliness of the elderly liv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won University, Daejeon.
- Kim, J. H. (2006).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loneliness and leisure activities of elderly peop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M. K. (1998). *A study comparison on ADL execute ability of elderly by health care institution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im, O. S. (1997).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7*, 871-879.
- Kim, O. S., & Baik, S. H. (2003). The relationships among loneliness, social support, and family function in elderly Korea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 425-432.
- Kwon, Y. E., Ha, Jin., & Ahn, S. Y. (2007). A study on the perceived health status, activities of daily living depression for the elderly at hom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7*, 335-343.
- Lee, O. S. (2000). *Relationship between the rehabilitation motive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spinal cord injury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 McAuley, W. J., Pecchioni, L., & Grant, J. A. (1999). Admission-related migration by older nursing home resident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4*, 125-135.
- Perry, G. R. (1990). Loneliness and coping among tertiary-level adult cancer patients in the home. *Cancer Nursing, 13*, 293-302.
-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 Savikko, N., Routasalo, P., Tilvis, R. S., Strandberg T. E., & Pitkälä, K. H. (2005). Predictors and subjective causes of loneliness in an aged population.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41*, 223-233.
- Song, J. A., Jang, S. O., Lim, Y. J., Lee, S. J., Kim, S. Y., & Seol, G. H. (2007). Factors affecting loneliness in community dwelling Korean eld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4*, 371-381.

- Statistics Korea (2009). Population Projections in 2006. Retrieved February 28, 2010, from http://kosis.kr/nsportal/feature/feature_0103List.jsp?menuId=08&mode=getListhttp://www.kostat.go.kr/
- Theeke, L. A. (2009). Predictors of Loneliness in U.S. adults over age sixty-five.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23, 387-396.
- Victor, C., Scambler, S., Bowling, A., & Bond, J. (2005). The prevalence of, and risk factors for, loneliness in later life: A survey of older people in Great Britain. *Ageing & Society*, 25, 357-375.
- Won, C. W., Rho, Y. G., Sunwoo D., & Lee, Y. S. (2002).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K-IADL) scale. *Journal of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6, 273-280.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30-41.

Factors Influencing Loneliness in Elderly Living in Nursing Homes*

Kim, In-Sook¹⁾ · Kim, Mi-Sook²⁾ · Kang, Hee-Young³⁾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2) Registered Nurse, Chosun University Hospital

3)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loneliness in the elderly living in nursing homes. **Method:** Th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150 adults, age 60 or over who had lived for one year or longer in two nursing homes in Gwangju. The questionnaires consisted of measurements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Frequencies, percentages and means were used with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test, ANOVA, and Scheffe test to analyze the data. The analysis was done with SPSS 12.0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o identify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loneliness in the elderly living in nursing homes. **Results:**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level of ADL and loneliness ($r=-0.379$, $p<.001$), support from friends and loneliness ($r=-0.472$, $p<.001$), and support from significant others and loneliness ($r=-0.449$, $p<.001$). Loneliness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support from friends, ADL, and support from significant others. This regression model explained 29% of the variances in loneliness. **Conclusion:** The findings in this study suggest that improvement in support from friends and ADL can lead to a reduction in loneliness in the elderly living in nursing homes.

Key words : Elderly, Nursing Homes, Lonelines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ang, Hee-Young

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375 Seosuk-dong, Dong-gu, Gwangju 501-759, Korea

Tel: 82-62-230-6323 Fax: 82-62-230-6329 E-mail: moohygang@naver.com